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3년 4월호 첫발행 1992.5.25 통권10호 발행인 최현숙

함께 가는 길

4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함께 가는 길 4월호

짜
임
새

일하며 생각하며 / 2	
혼자가 아니고 돌아가기에	오춘자
기획 / 4	
신학기 자활맞이	편집부
아동교육 / 13	
1.신입아동을 맞이하는 교사의 자세와 역할	아동교육분과
2.어린이날에 대하여	
개특위 / 21	
1.올바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서	
2.본 회 소속 탁아소 이용가구 소득조사 결과	
	영유아보육법개정특별위원회
조직과 상황 / 32	
나, 탁아소, 지역위원회가 곧 연합회다!	
글마당 / 34	
젓 병	최홍국
탁아소별곡 / 35	
3월이면 생각나는 아이	빈혜영
소식과 소식 / 37	
우리들의 목소리 / 48	
변미양, 오윤정, 강영신, 박선희	
편집부에서 / 56	

*탁아소별곡 / 12 봄맞이 집안 대청소 요령 *신문속에 세상이 보인다
/ 28 자주 바뀌는 조세제도, 진짜 속셈은 ? *알아봅시다 / 31 여성,
생산직 고용감소 두드러져 *자라는 아이, 건강한 교사 / 33 모든놀이
에서 주인공이 되려는 아이 *새책소개 / 52 *지택연 벼룩시장 / 53

☆☆포지사진: 지난 3월 28일에 '작은 소망으로 피어나, 그 두번째' 주제로 열린
인천 세쌍둥이 추모제 및 공연 중 서울의 초등학교사 품물모임인
'혼장패'가 공연하고 있다.

일하며 생각하며

혼자가 아니고 돌아가기에

오춘자 (전주 금암어린이집 원감)

엄마의 가출로 나오지 않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다른 선생님과 함께 가정방문을 갔다. 봄별은 탁아소안에서만 종일토록 생활하던 우리의 얼굴을 무색하게 하려는 듯 따사롭게 내리 쬔어주고 있었다.

모교국민학교 담장밑에서는 나의 어린시절에 등학교길을 가볍게 해주던 개나리꽃 덩쿨이 노란옷을 입고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20여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낡은 붉은색 벽돌집에 개나리 담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방문한 가정은 아빠가 기사고 엄마는 판촉물을 나누어 주고 다녔다. 아빠의 술주정과 폭력이 심해지면 그때마다 엄마는 며칠씩 가출을 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 이번에는 심하게 싸운탓인지 한달이 되어가도 그 아이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긴 골목을 지나서 자그마한 양철대문을 차고 들어서니 아빠는 술에 취해서 누워있고, 두아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방청소를 해주고서 작은 아이의 배고픔을 우선 해결해 주기위해 빵과 우유를 사다주고 앉아서 큰아이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의 폭력을 자주 본 탓에 아이가 부정적인 시각만을 간직할까 싶은데, 주위분들의 따스한 정으로 교회에 나가면서 아빠,엄마를 측은하게 생각하는 국민학교 2년생으로 자라난 큰아이도 나와 인연이 있어 5년동안 함께 지냈다. 이삿짐을 함께 싸주고,우리 큰아이를 업어주고 우유병을 물려주던 꼬마친구다.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빗줄기가 내렸다.

4월에 내리는 봄비는 89년과 90년 그 힘들었던 시절로 나를 되돌아 가게했다.

전에 하던 탁아소가 전세값 폭등으로 인하여 겨나 전주 주변에 있는 시골 복지관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 10월말 추운날에 이사를 하여 자리를 잡고서 시골분들과의 만남을 다지고 있는 터, 그 다음해 4월에 복지관이 영유아보육법(실행수)에 위배된다고 하여 먼 직원들이 탁아소에 찾아와 철거광고내용을 붙이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 해 4월에도 봄비가 많이 내렸다. 집 담벼락에 기대어 난감함에 소리없이 울기도 했었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빗물을 맞으면서 멍하니 풍성하게 핀 개나리꽃만 바라보기도 했다. 이사한지 만 5개월도 채 안되어 다시 탁아소 짐을 꾸릴 때 봄비는 왜 그리도 내리는지 짐없는 설움에 눈물도 많이 흘렸다.

엄마들과 함께 흘린 눈물은 봄비와 함께 고량을 타고서 어느 바닷가 한 모퉁이를 채워주고 있을 것이다.

그해 봄! 나에게 용기를 주고 이사할 집을 함께 찾아주던 선배목사님,탁아사업을 함께 했던 동지들. 선배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후배들의 눈길과 누구보다도 이삿짐을 함께 싸고 풀던 엄마,아빠,그리고 꼬마친구들의 눈망울이 새로운 힘을 주었다. 서로 얹혀진 고리들이 있었기에 나는 쉽게 하던 일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해 네번의 탁아소 이사를 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끝내는 오늘 현장에서 꼬마친구들과 만나고 있으며 후배들에게 담담하게 힘겨웠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미소지으며 이야기 할 수 있다. 그 봄에 내려주었던 봄비는 고량을 더욱 깊게 파주었고,땅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주었던 것이다.

해가 거듭되어졌으나,여전히 변함없이 붉은 벽돌집과 개나리꽃이 담장밑에서 활짝피어 있듯이 나도 이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다지면서 굳건하게 서있고 싶다.

각 탁아소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동지들과 함께 오늘에 주어진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이 현장을 지킬 것이며 오늘 내가 서있는 자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요,5-6년 아니 10년 이후에 우리 꼬마 친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랄 것인가를 그려보면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속에서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해 본다.

기획

신학기 자원활동가 맞이

- 자활가의 조직화와 관리는 초기에 결정된다.

편집부

“도대체 총여학생회에서 요새 왜 이렇게 자활을 많이 나오는거야? 도대체 개네들이 원하는 건 뭐지?”

“왜, 뭐가 문제예요?”

“무슨 생각으로 탁아분과를 만들어서 나오는지 애매하구만.”

지방교사들과 함께 한 어느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끝에 지나가는 듯이 오고간 이야기이다.

얼마전 서울의 홍익대학 봉사동아리에서 본회를 찾았다. 이 동아리는 80년대 중반에 생겨 현재는 15-20여명의 인원이 카톨릭재단의 장애인여성복지시설에서 주중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노력봉사활동(그들의 표현을 빙자면)을 해왔다. 본회를 방문한 것은 그간 봉사나가던 복지시설이 교외로 이사가면서 실제 활동이 어려워진 탓에 다른 봉사활동을 모색하던 중 같은 학교의 탁아활동 동아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찾은 것이다. 이들은 탁아문제보다는 우리 탁아소상황에 대해 알기를 원했으며, 자신들이 할 말한지를 놓고 세심한 검토를 하였다.

신학기를 맞아 탁아소 자원활동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오랜기간 활동을 한 자원활동가들은 새 자원활동가들을 맞이하여 탁아소로 안내하기에 바쁘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자원활동가들은 그들대로 잘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면서 탁아소에 적응하고자 한다.

I. 새 자원활동가 - 조력자이면서 교육과 관리의 대상

지난해 말 부터 준비하여 올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학여대 유아교육과의 경우, ‘..평소 우리 사회의 탁아현실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현장학습을 통한 보다 살아있는 전공을 체험하고자 하는 과친구들끼리 모여 올해 처음으로 꾸린 모임..’이라고 학회소식지에 탁아모임을 소개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학기초 이들의 이러한 결심과 노력은 탁아소의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없는 가운데 대개의 경우 4월의 중간고사, 6월의 기말고사를 지나면서 활동력과 활동인원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여름방학을 거치고 2학기가 되면 새로운 얼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1학기과 같은 형태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

탁아소는 매년 새로운 자활가들을 받으면서 적응기간내의 혼란함을 겪어야만 되고 이는 탁아소내의 바쁜 일상을 보건대 적지않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자활가들을 될 수 있는 한 지속적으로 장기간의 활동을 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또한 그간 지지부진하게 활동을 전개하던 자활가들의 활동력을 높이는 가운데 탁아활동의 진정한 조력자, 나아가 탁아운동의 주체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얘기는 당분간은 즉 자활가들이 조직화되어 자신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까지는 탁아소에서 봤을 때 이들은 조력자이면서 한편으로는 교육과 관리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II. 새 자원활동가 맞이할 어떻게?

탁아소에서 새로운 자활가들을 맞이하였을 때 주로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래도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점일 것이다. 이글에서는 초기의 두세달에 걸쳐 새 자활가들을 교양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첫번째로는 탁아소로 오기까지 각 자활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 즉 자활가들이 탁아소 자원활동을 계획하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

이는 단순봉사활동의 차원에서 고아원등의 봉사활동에서 전환한 것인지, 탁아운동의 내용에 대한 접근속에서 각 자활단위가 지향하는 부문운동의 영역 (민중연대, 여성운동 등)의 구체적인 실천활동인지, 아동교육과 관련한 전공의 현장학습인지, 자기 단위 성원들의 친목과 유대감 강화를 위한 매개로서 자리한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위에서 열거한 몇가지의 의미와 목표들이 모임내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혼재되어 나타나며 탁아소활동을 하면서 정리하기를 원하며 선생님들이 조언해주고 지도해주길 기대한다.

우리가 이들의 이러한 과정을 함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세운 각기 다른 목표와 의미에 따라 탁아소활동에 대해 소극적이 될수도, 때로는 탁아소활동에 적극적인 동력으로 자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들의 목표와 의미를 최대한 탁아소 활동속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우리 탁아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입장과 문제의식, 운동성을 받아들이고 같이 활동을 하기에는 '봉사와 성원들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들은 여러가지 진통을 겪는 것 같다.

따라서 각 자활가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흔히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 대해 세심히 검토한다. 대개의 경우 바쁜 일정속에서 '도움되는 일손'으로 그냥 맞이하게 되지만 우선 첫 면담에서부터 우리 탁아소에 대한 특수성과 역사, 활동내용, 기존 자활가들의 상황과 앞으로 해야할 사업, 주의사항 및 규칙 등에 대해 얘기하여야 한다.

안산지역 '꿈나무 어린이네집'의 경우 처음에 새 자활가들에게 신진자모용으로 마련한 교육계획안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밟으면서 아이들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듯이 자활가가 자원활동을 하는데 익숙해지려면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 적응기간에 지킬 약속 등을 정해두면 좋다.

2) 두번째로는 각 자활가들의 성향과 취미, 활동이 가능한 조건과 시간 등을 파악하고 두명이상의 집단일 경우 반드시 책임자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각 자원활동가들의 신상카드를 작성하거나 연락처를 반드시 알아두

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가가 탁아소에 한두번 오다 활동이 왜 그치는지를 잘 살펴보면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새 자활가는 활동을 약속한 시간에 늦어져 망설이다 보니 한번 빠지게 되었고 (탁아소로 사전에 연락도 없이) 그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안 간 것을 생각하고 주저하다 보니 두번, 세번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탁아소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간혹 오늘 어느 자활이 안 왔는지에 대해 무감(?)할 때가 있어 선생님들은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는데 신입 자활가 스스로 애를 먹는 것이다. 또 선생님은 자활가가 올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연락도 없이 안 오는 자활가들을 대하면 화도나고 못된 게 된다.

이럴 경우 자활가 담당선생님이 확인 연락을 하거나 각 자활모임의 연락책임자가 적절히 연락하고 활동을 점검하여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세번째로는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우선 형성한다.

새 자활가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어색함은 선생님과 자활가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탁아소의 하루 일과중에서 이런 시간은 낮잠시간과 방과후 시간 등이 있다. 선생님, 아동이 편안하게 휴식하는 유일한 시간인 낮잠시간중 단 10분이라도 짬을 내어 자활가들과 같이 얘기하고, 공동작업(오후 교육프로그램의 준비 등)을 해보자.

모 학교의 경우 전공을 살려 자원활동을 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저학년들이 탁아소를 바꿀 것을 제기하여 선배들을 아주 난처하게 한 적이 있다. 교통불편 등의 문제를 들었으나 그들의 솔직한 심정은 '탁아소에 정이 안간다'는 것이다. 빠듯한 탁아활동의 일정에다 탁아소에 신뢰감을 갖고 친근해지기도 전에 우선 자활모임에서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이 먼저 앞서게 되어 생긴 문제라고 보여진다.

4) 네번째로는 각 시기에 따라, 자활가 특성에 따라 '활동거리'를 마련한다.

새 자활가들은 대개 탁아활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한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

지, 자신은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마냥 귀엽다는 생각만 들 뿐 얼떨떨한 마음으로 탁아소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간신히 “00야, 이름이 뭐야? 형있어, 언니있어?..” 묻는데 질문도 이어지지 않고 아이들의 대답 후 한참의 침묵이 흐른다.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한참을 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잇감이 보여 “00야, 네가 놀고 있는 게 뭐니?” 묻곤 간신히 아이들 주변에 매달려(?) 놀이를 같이하려 애쓴다. 이정도면 조금 나은 것이고 숫기없는 이들의 경우는 아예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한다. (발달단계상 2-3세아이들 수준이다.)

20여명의 설거지를 하는데 1시간은 걸리고 걸레하나 빨아오라하면 술기하나하나 세고있는 경우도 있다. (너무 심하게 표현했나?)

일반적으로 탁아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자활가들에게 일들을 주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친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것저것을 시키고 마음줄이며 있느니 .. 하는 생각으로 선생님과 자활가 양쪽을 소극적으로 만들게 된다. 더우기 도와주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깔끔한 마른일을 시키려는 마음, 언제까지 올지도 모를 이들에게 책임있는 일을 맡기고 싶지않은 마음, 시키려면 더욱 번거롭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자활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넉넉치 않은 재정상황에서 간식, 점심을 먹고 오는 것도 눈치되는 일이며 하루종일 하는일도 없이 시간때우다 오는 것도 못할 노릇이다.

따라서 탁아운동의 주체세력으로 한 몫을 담당해야 할 자활가들의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탁아소의 목적의식적인 활동배치와 양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 탁아소에서 3년간을 활동하던 모 학교 과 소모임에서 탁아소를 바꿀 것이 지난해 동안 신중히 검토되었다. 본 회에서 중심적으로 벌이는 탁아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알지도, 참여하지도 못하였으며 탁아정세에 대한 대응에 함께 하지 못했다. 이들은 단순한 가사보조활동을 적응기간내의 역할 배려없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다. 아동교육활동, 탁아소 전체행사에 있어서도 이따경정된 상황에서 의미도 모른채 ‘몹대주기식’으로 뒤섞여서 하고 있었으며 활동기간이 흐를수록 발전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일해줄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본 회 활동이라던가 탁아소 외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알지도

못한 채 단순히 ‘탁아소내 단순보조’로 위치지워진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 모임내에서 탁아활동에 대한 의의성등이 전차 설득력을 잃어갔던 것이다.

탁아소에서는 여러 일들속에서 자활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자활가, 탁아소에 익숙해진 자활가들대로 탁아소는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회의에서 그 달에, 그 주에, 그 날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조직화’한다. 게시판에 활용하여 그날에 온 자활가들이 할 일들을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 먹고 자는데 보조해줄 것을 기본으로 하여 아동관련 일지정리, 탁아소 도서정리, 간식담당, 동화구연 담당등을 정해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탁아소내 자활전체모임에서 그달의 사업, 활동을 같이 공유한 가운데 모두가 알고 있다면 더욱 좋다. 자원활동은 개별적인 성실성이 많이 요구되는 면이 있는 반면, 지속적인 활동력을 요구하는 탁아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임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임내에서 역할의 영역을 넓히고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를들어 환경미화판을 어느모임이 담당한다거나, 아동교육활동 중 실외놀이, 신체놀이등을 담당한다거나, 구성인원이 많은 모임의 경우 휴일을 정해 한꺼번에 탁아소를 방문하여 대청소를 같이 한다거나, 등등

5) 초기에 집중된 내용으로 자활가 교육을 한다.

얼마전에 방문한 전북대학교 총여학생회는 이전까지 당과대내 동아리등에서 활동했으나, 올해부터 총여학생회 사업으로 인식하여 준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요관심은 여성문제속에서 탁아, 탁아활동속에서 여학생회라는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조명과 특히 여성문제에 대한 접근의 구체화라는 맥락속에서 탁아활동을 위치지우려 든다.

탁아소에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 자활가들을 보면서 많은 선생님들은 갈등을 느낀다. 교육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부터 할지도 막막하고, 자체 세미나라도 하는 모임일라치면 이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간혹 터무니 없어 맹인 코끼리 만지듯이 이야기, 저얘기 듣고 와서는 내놓으라고만 하니..

그와는 반대로 아무런 교육경험, 활동 준비없이 아이들과 '그저 놀아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활들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선생님들은 '선생도 아닌데 뭐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닐지..

최선의 방법은 자활가용 교육자료집이 있는 것이 가장 좋으나 아직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문건, 자료들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탁아소내에서 정기적인 자활가모임을 통해 적절한 교육을 기획하고자 한다면 각 성원들의 요구를 우선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또한 먼저 교사들이 반드시 자활가들에게 전달해줘야 할 것들을 교사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면 자원활동 초기라면 각 탁아소의 특수성, 탁아소내 규율과 규칙, 교사의 역할,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 등의 실제내용부터 우리 탁아소에서 지향하는 아동교육전반에 대한 목표와 교육활동의 원칙 등이 우선될 것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70,80년대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와 여성문제에서 파생되는 탁아문제의 발생과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탁아운동 (법, 정책, 제도, 집회 등)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각 모임이 탁아소 자원활동을 하는 의미와 목표에 따라 또는 학생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지적호기심에 따라 교육의 내용을 좀더 세분화시켜 논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정도라면 탁아소에서 교육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자세하게 세분화시켜 깊이 알고자하는 경우 이들은 모임내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해소하려 든다.

집단적인 자원활동이 안정적으로 되는 대부분의 학교는 월1회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교육커리큘럼을 잡아놓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 아동교육, 여성문제 등을 어떻게 결합시켜 교육할 것인지를 두고 골머리를 썩인다.

예를 들어 여성문제와 자원활동(탁아문제도 아니고)을 연계시키려는 모임들이 있다면 대개의 경우 여성문제의 기원, 여성해방사상의 흐름 등 여성학관련서적을 뒤적이게 된다. 이들의 경우 한학기 내내 이런 내용을 세미나해도 탁아소활동의 의미를 찾기는 커녕 세미나에 지쳐 나가떨어지기 일쑤이다.

아동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아동교육활동에 대한 무지를 극복하고자 해도 아동교육과 관련한 방대한 서적을 두고 무엇을 공부해야 할 지 몰라

업무를 못내게 된다.

따라서 새 자활가들의 교육에 관한 한 개괄적인 내용을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내에 할 것을 염두에 두고 탁아소에서는 중요한 원칙과 내용을 짚어주는 가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임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서울 구로구 구로농이방으로 활동나가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탁아분과에서는 「새 자활맞이 교양」계획을 다음과 같이 짰다.

내용을 보면 ①탁아소 자원활동 소개, 인사 ②함께 보는 비디오: 일하는 엄마들의 삶과 탁아문제 ③엔터 ④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는? 으로 잡았다. 특이한 것은 두번째 시간인 비디오(본 히 제작 우리네아이들 비디오 팀 2종)시청을 위해 이땅의 일하는 엄마들의 현실, 탁아소의 필요성과 탁아현실에 관한 간단한 자료를 준비하여 토론을 도왔다. 또한 네번째 시간에는 탁아소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아이들에 관한 생생한 얘기들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Ⅱ. 맺는 글 - 탁아운동의 지지기반의 확대

위에서 살펴본 것은 아주 일부의 사례들이기에 감히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학생운동속에서 탁아활동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차로 부각되어 그들의 장점인 '집단성'을 가지고 탁아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활가들을 그저 조력자가 아니라 탁아활동의 지지, 재생산구조로 자리매김해야 할 별도의 조직적 인식과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대구지역, 부산지역위 등에서 교사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를 인식하고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음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활동을 칭찬, 북돋아주고 잘못된 것에 대한 간접적인 충고와 단순한 명령이 아닌 의견을 구하는 자세, 그들의 소소한 목표와 궁지들을 지켜주는 자세, 일단 맡긴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고 그들이 책임져 완수했을 때는 사소한 일이라도 아낌없는 칭찬과 그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는 자세, 그런 과정속에서 스스로들이 자진해서 협력케 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조직화'해야 한다. '해 봐야 너희들이

얼마나 하니?'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설혹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들의 관심의 소재를 파악하여 가능한 한 탁아활동에 조력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탁아운동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길이다.

봄 맞이 집안 대청소 요령

손이 닿는 곳의 먼지는 빗자루나 먼지떨이로 쓸거나 털어내기보다는 형겅이나 휴지에 물을 묻혀 닦는 것이 효과적이다. 천장구석에 엉겨붙은 먼지는 빗자루에 물을 살짝 묻혀 걷어내고 장롱밑은 신문지에 물을 묻혀 훑어낸다. 아이들이 벽지에 묻힌 크레용은 부드러운 형겅에 치약을 묻혀 문지르면 없어진다. 손이 자주 닿아 더러워진 방문 손잡이는 마른형겅에 치약을 묻혀 닦아내거나 마시다 남은 맥주를 형겅에 적서 닦아주면 깨끗해지고 반짝반짝 광택이 난다. 흙먼지가 많이 쌓인 현관 바닥은 물에 흠뻑 적신 신문지를 잘게 찢어 바닥에 미리 깔고 빗자루로 쓸면 먼지가 일지 않아 좋다.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때는 나일론 소재의 스타킹에 부엌용 세제를 묻혀 문지르면 깨끗해진다. 울룩불룩 무늬가 있는 유리 그릇의 흠에 낀 때는 식초를 칫솔에 묻혀 닦으면 간단히 닦아진다. 욕실의 샤워기에 낀 물때는 식

탁아소 백과

초를 탄 물에 샤워기를 한시간쯤 담가 두었다가 행구면 물때가 쏙 빠진다. 냉장고의 곰팡이, 악취, 더러움을 제거하려면 소독용 알콜이나 맥주 등을 이용한다. 전자레인지 내부는 물을 부은 그릇을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수증기를 내게하면 전자레인지 안의 말라붙은 오물이 붙어서 일어난다. 카펫은 머리빗을 이용해 빙글빙글 원을 그리고 문지르면 머리카락, 실오래기 등이 잘 붙어나온다. 섬유사이에 가느다란 먼지나 기름때 등이 섞여 있으므로 빗살이 촘촘한 머리빗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텔레비전이나 오디오기기는 기름걸레로 닦고 구석진 곳이나 틈새는 알콜을 면봉에 묻혀 닦아준다. 커튼에 쌓인 먼지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이 효과적. 전화기는 식초를 형겅에 묻혀 닦고 버튼 주변의 틈새는 소독용 알콜을 면봉에 묻혀 닦아낸다.

아동교육

신입아동을 대하는 교사의 자세와 역할

아동교육분과

3.4월이 되면 모든 탁아소는 초비상이다. 새로운 아이들 적응시키라, 이전부터 있던 아이들과 지내라 정신이 없다. 새로운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해 겪는 교사의 어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전부터 있었던 아이들은 선생님의 관심이 자신에게 멀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저지르거나 말을 잘 듣지 않고, 마냥 우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짜증을 내기도 한다. 전체 탁아소의 흐름은 흩어지고 정신없는 아노미 상태까지 가기 쉽다.

교사는 새로운 아이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소개하고, 달래도 보고 업어주기까지 한다. 그러다가 안되면 '울다보면 적응되겠지'하고 손 놓다가도 받는 스트레스때문에 아이에게 화를 버럭 내고, 아예 무시해버리기도 한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밀려드는 회의와 무력감, 더 잘 할 수 있었는데라고 후회를 하게 된다.

아동교육분과장 회의를 통해 마련된 이 자료는 신입아동의 입장에서 아이의 상태를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토대로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하며 아동이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나도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줄 것이다.

새로 온 아동의 상태와 교사의 자세

아이들이 새로 오면 엄마뒤에 숨어 있지만 계속 여기저기에 눈을 돌린다. 처음

와서 모든 것에 흥미를 느끼고 활발하게 뛰어 노는 아이도 있는데, 이런 아이는 쉽게 잘 적응한다.

조금씩 놀이감을 만지고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며 탐색하던 아이는 첫날은 잘 놀다. 그러나 이틀째 되면 엄마가 없는 낯선 상황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터 울기 시작한다. 우리는 아이가 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낯선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로 우는 것이다. 교사가 이런 관점을 갖고 아이를 대한다면, 우선 우는 것부터 멈추게 하겠다고 하여 좋지 않은 방법을 택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적응하게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교사와의 신뢰로부터 아이의 신뢰감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고 끈기있게 돌보아 주겠다고 생각해야 하며, 아직 정이 든 것은 아니지만, 애정과 신뢰를 갖고 대해주어야 하며 조금은 힘들 것이라는 자기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러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아이의 경우는 탁아소 입소에서 고려해보아야 한다.

아동이 탁아소 오기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전에 가정방문 상담, 입학원서 등을 통해 아이의 생활 리듬 (몇시에 낮잠을 자는지? 시끄러운 것을 유난히 싫어하는지 등등) 좋아하는 놀이, 장난감, 음식은 무엇인지, 아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가정방문은 여러 방면에 도움이 되지만, 아동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 아이의 환경, 성격, 엄마의 양육 방식을 알 수 있고, 탁아소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행동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준다.

또 상담할 때,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와서 탁아소 환경에 익숙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익힘으로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계속 우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잘 적응할까?

우선 여러 교사의 손을 타기보다는 아이가 환경과 친구, 선생님에게 신뢰를 갖기 전에는 한 교사가 집중해서 아이를 볼 필요가 있다. 한 선생님만 따라다니게

되면 의존적이 되거나 다른 선생님을 따르게 되지 않게 될까 염려하지만, 우선 한 선생님이 계속 돌보면 지속성이 있고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또한 한 선생님에 대한 애착은 탁아소생활에 적응하면, 확산효과를 갖게 되기에 크게 문제삼지 않아도 된다.

아이를 볼 때 그냥 달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이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가지 볼거리와 작업, 책 보기 등 활동에 참여하게끔 한다.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여주며, 교사가 놀아주고 아이들의 놀이에 참여하게끔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1) 아이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무리하게 장난감 치우기, 제자리에서 식사하기 등의 규칙을 강요하지 않고 유도한다.

-> 친구들이 장난감을 치우는구나, 우리도 이제 치우고 간식 먹을까?

싫어? 그대 그러면 조금 있다가 치우자. 우선 간식먹기전엔 꼭 치운단다.

- 2) 아이가 교사를 신뢰하기 전까지는 단호한 모습보다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 좋아하는 것을 갖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안정된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돕는다.

- 3) 아이가 어리더라도 엄마는 일하러 가고 일 나간 사이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이라 일러주고 엄마가 돌아온다는 것을 설명하여 준비하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엄마가 오시면 "어,엄마가 오셨네. 네가 놓다보면 엄마가 오시지!"

- 4)혹시 혼낸 교사가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그 아이가 풀릴때까지 대해야 한다. 혼내는 선생님,달래는 선생님이 구분되는 것은 좋지 않다.

- 5)가정방문을 간 선생님이 아이가 처음 올 때 아침에 맞아 주는 것이 좋다.

부모와 함께 할 것들.

요새는 아이들이 이전보다 적응을 잘하는 편인데 이는 엄마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줄고,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엄마들은 직장에 적응하라,아이들 걱정에 이중의 어려움을 갖고 있

다. 엄마들이 우선 탁아소를 믿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탁아소 생활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이의 반응을 서로 교환하고 신뢰를 쌓아나간다.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맡길 때,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울더라도 보는 앞에서 가고 돌아옴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모와 합의해서 탁아소에 있는 시간을 서서히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는 오전만, 또 하루는 자기전에 이렇게 점점 시간을 늘려감으로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

기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이들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움직이는 장난감, 차, 공을 비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밖을 볼 수 있는 창가나 물고기, 먹는 것을 또한 좋아한다.

특히 미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보고, 아이가 처음 왔을 때 그런 음식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교사의 어려움은 클 것이다. 그러나 항상 좋은 경험을 주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에서 아이들은 좀 더 쉽게 적응하리라 확신하며 이 글을 통해 다시한번 되돌아 보고, 더욱 자신감 있는 자세로 아이들을 맞이하자 !

어린이날에 대하여

‘어린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어린이’란 어린아이의 준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젊은이, 늙은이와 동등한 인격체로 격상시켜 높여 부르는 말이다. ‘어린이’란 말은 소파 방정환씨가 만든 말

로써 1920년 소파가 22살때 그가 관계하던 잡지 「개벽 3호」의 번역 동시 〈어린이 노래 :불켜는 아이〉란 작품속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후 1923년 소파가 주간으로 꾸민 소년잡지 「어린이」의 창간호로 세상에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1985년 5월 1일 색동회¹⁾가 마련한 ‘어린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이: 만4살 - 12살

배움: 유치원 - 국민학교

자람: 말을 익히고 자유롭게 활동할 때부터 사춘기 직전까지

마음: 또래 모임(집단)에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나이

특징: 사람으로서 가장 기억력이 왕성하고 모방심이 강하며 감수성이 예민하여 주위환경에 물들기 쉬운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날의 유래와 경과

1923년 5월 1일 제 1회 ‘어린이날’이 시작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상황과 봉건제의 ‘장유유서’사고는 어른을 공경하라는 규범의 정신이 죽고 어린이는 어른을 위한 존재로 눌러있게 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극복하고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예우하며 또한 3.1운동 이후 전개된 국권회복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운동이 전개되게 되었다. 소파 방정환에 의해 이 운동은 널리 확산되게 되었는데 소파에게 천도교의 인내천(人乃天) 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어린이도 ‘한울님과 같이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사상과 동학 제2교주 최시형 선생의 법설 〈대 인접물(對人接物)〉 편에서 ‘아이를 매질하지 말라. 아이를 매질하는 것은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 라는 덕목들은 천도교에서 어린이 운동을 태동시킨 뿌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이후 손병희씨와 그의 사위 방정환에 의해 어린이운동은 범 사회적으로 전개되었다. 1921년 5월 1일 조직된 천도교 소년회가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의 날’로 선포하고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나눠주며 자동차를 앞세우고 창가대와 함께 종로 네거리를 누비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때

1)1923년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유학생들이 일본 동경에서 구성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활동하고 있다.

뿌려진 <항상 10년후의 조선을 생각하십시오>라는 유인물에서 한 가정, 한 사회, 한 나라가 장래의 희망을 둘 곳은 어린이임을 인식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923년 5월 1일 천도교 소년회를 모태로 <불교소년회>, <조선소년군>등이 참여하여 <소년소녀운동연합>이 구성되었고 이 단체의 주최로 천주교회당에서 제1회 어린이날 선포와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선언문이 낭독되고 <어린이에게 드리는 글>, <어린 동무들에게>라는 선전물이 12만장이나 시내에 배포되었다. 1923년 어린이날 선언문은 1924년에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 선언(제네바 선언)」보다 앞선것으로 우리 민족의 어린이운동에 대한 선각자적 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923년 3월 20일 소파가 최초의 순수 아동잡지 <어린이>를 동경에서 편집하여 천도교 소년회와 개벽사에서 창간했다.

어린이날 주기의 횟수는 1923년에 두고 있으나 1922년 행사로 인해 이견이 있다.

그후 1927년 어린이날 기념식은 소파중심의 민족주의적 소년운동단체인 <소년운동협회>와 정홍교씨 중심의 무산소년운동단체인 <5월회>가 그 해에 통합하여 <조선소년연합회>로 되면서 1928년 5월 첫째 공휴일을 어린이날로 변경할 것을 결의했다. 1935년, 36년엔 일제의 탄압으로 형식적 행사에 그치게 되고 1937년엔 어린이날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1945년 해방이후 1946년의 제 24회 어린이날 행사가 휘문중학교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이때 5월 첫 공휴일이 계속 날짜가 바뀌므로 1946년 5월 첫째 공휴일인 5월5일을 어린이날로 확정했다.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제정된 과정은 1972년 색동회에서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여론수렴과정을 거친뒤 1975년 1월 16일자로 5월5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어린이날 선언문 (1923.5.1)

어른에게 드리는 글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1.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1.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부드럽게 하여주시오.
1. 이발이나 목욕, 의복같은 것은 때맞춰 하도록 하여주시오.

1.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하게 하여 주시오.

1. 산보와 원작같은 것을 가끔 시켜주시오.

1. 어린이를 책망하실때에는 성만 내지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1.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1.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어린이들에게

1. 돈은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1. 어른은 물론이고 여러분도 서로 존대말을 씁시다.

1. 뒷간이나 다meric 글씨쓰거나 그림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1.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1.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사양하기로 합시다.

1. 입을 꼭 다물고 몸을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어린이날 어린이에게 주는 글

소파 방정환

돈 없고 세력없는 탓으로 조선 사람들은 이때까지 내리눌리고 짓밟히며 아프고 슬픈 생활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중에서도 그 쓰라린 생활속에서도 또한층 우리의 어림은 크게 자라날 어림이요, 새로운 것을 지어낼 어림입니다.

어른보다 10년 20년 새로운 세상을 지어낼 새 밑천을 가졌을 망정 결단코 어른들의 주머니 속 물건만 될 까닭이 없습니다. 새로 피어날 새싹이 어느때까지든지 내리 눌러만 있을때 조선의 슬픔과 암흑은 어느때까지든지 그대로 이어만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이 없이 뻗어 갈 새목숨, 새싹이 어느때까지든지 눌러 엮드려만 있지 않습니다. 5년전의 5월 초하루! 몇백년 몇천년 눌러 엮드려만 있던 조선의 어린이는 이날부터 고개를 들고 이날부터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려운 것을 헤치고 덮인 것은 벗겨 던지고 새세상을 지어놓을 새싹은 우쭐우

쪽 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서는 마치 5월 햇볕같이 찬란하고 5월의 새잎(푸른숲)같이 씩씩하고 또 5월의 샘물같이 맑고 깨끗하였습니다. 어린사람의 해방운동이 단체적으로 5백여처에 일어나고 어린 사람의 생명양식이 수십가지 잡지로 뒤이어 나와서 '어린이'의 살림이 커지고 또 넓어졌습니다.

아아, 거룩한 기념의 날 5월 초하루! 기울어진 조선의 어린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엄동은 지나갔습니다. 적설(쌓인 눈)은 녹아 없어졌습니다. 세상은 5월의 봄이 되었습니다. 놀리우는 사람의 발밑에 또 한겹 눌러온 조선의 어린 민중들이여! 다같이 나와 이 날을 기념합시다. 그리하여 다같이 손목잡고 5월의 새잎같이 뻗어나갑시다. 우리의 생명은 뻗어나가는데 있습니다. 조선의 희망은 우리의 커가는데에 있을 뿐입니다.

- '어린이' 4권5호 1926년 어린이날 기념호

1993 어린이날 행사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각

지역의

관심과

홍보

및 부

탁

참드

석립

을니

다

★일시 : 1993년 5월 5일(수)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 참가대상: 유아에서부터 국민학생, 부모, 교사

★ 당일행사: 기념식, 놀이마당, 전시마당, 공연, 만화영화상영, 장터 등

★ 참여예상인원: 7,000 - 8,000 명

★ 참여단체: 지탁연, 전교조초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교육대학 총학생회, 놀이연구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문학협의회, 교육문예창작회, 유아교육을 위한 전국교사모임

★도움단체: 전교조초등미술모임 (그림전시), 월간우리교육(사진), 정승각(화가), 서울무비, 영상모임(비디오, 만화영화), 극단아리랑(아동극), 이오덕 (초청강연)

◎ 우리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

엄터,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레크레이션과 노래자랑
도깨비집,기구를 가지고 노는 놀이,부모와
함께 하는 만들기, 인형극,아동극 등 다수

개특위

올바른 보육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서

영유아보육법개정특별위원회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보육사업정책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사부에 제안서를 발송하고 면담할 예정입니다. 보육사업지침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장기성을 놓고 볼 때 반드시 우리가 요구해야 할 문제들을 함께 제안합니다. 올해에는 특히 보사부, 청화대, 국회 보사위원, 각 시.도 보사위원 앞으로 발송하여 탁아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자료는 공식적인 제안서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고 제안의 내용만을 간추려 실습니다.

각 지역위원회에서 선전과 교육작업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하는데 본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편집자 주)

들어가는 말 - 제안의 취지 및 인사말

: 청화대, 보사부 등의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실지 않습니다.

제안사항

1. 보육사업예산의 확대와 정부의 책임있는 보육시설의 확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국공립 보육시설 등 지원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대와 아동지원의 대상을 넓히고 올바른 집행을 제안합니다.

3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질의사항

제안의 내용

본 제안서는 정부의 보육사업 제도의 발전을 위해 보육사업을 활발히 벌여 온 가운데 반드시 시정,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본 회의 의견을 밝히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매년 보사부에서는 보육대상을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수요 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장래인구 추계자료에서 다시 추계한 자료들로 보육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육사업을 계획하는 행정부서로서 장기적인 보육사업의 확충계획과 지원방안을 실제대상아동에 근거하여 수립하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보육수요 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인원을 확충하여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중앙과 지방의 보육사업의 규모와 예산, 확충계획과 지원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공포된지 3년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바 그동안의 보육사업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보육사업을 전망하는 한편 보육사업을 하는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들이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정부의 보육사업의 의지가 더욱 널리 밝혀지고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보육사업에 대한 범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안사항 1.

보육사업예산의 확대와 정부의 책임있는 보육시설의 확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차원에서 보육문제를 해결키 위한 적극적인 의지표현은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의 수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보육사업예산의 확대와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보육사업예산은 지난해에서 4% 인상되어 4백7십억여원입니다.

보사부에서 1993년 현재 100만명의 아동을 보육키위해 필요한 시설수 (민간, 가정보육시설 포함)를 32,343개소로 잡고 있으나 정부에서 보육문제를 해결키 위해 적극적으로 보육시설을 신축하기보다는 새마을유아원 등의 시설에 대한 전

환유도와 인가유도 및 민간, 가정보육시설로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700개소, 신축예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예산만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취업모의 아동의 7% 정도가 보육되고 있으며, 보사부에서 밝힌 보육대상아동의 9%만이 보육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책임있는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과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부족한 국고지원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진 올해의 경우, 지방실정에 맞는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일면 긍정성이 있으나 지방비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육사업 수행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불 때 보육사업예산을 확대하여 국고지원을 늘이는 한편 자치구비를 마련하여 보육사업의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안사항 2.

국공립 시설등 지원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대와 아동지원의 대상을 넓히고 올바른 집행을 제안합니다.

2-1 시설지원의 확대

국공립시설 중심의 지원정책을 폈던 1991년의 경우 지원시설 운영비의 80%수준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60%수준으로 인하, 조정되었으며 올해의 경우 국공립시설등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20%수준까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지원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원받고 있는 시설의 운영을 악화시키고 있어 정부의 보육사업의 올바른 운영에 많은 차질을 주게 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삭감으로 인하여 보육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로인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과 보육사업의 공공성을 가져야 할 국공립 보육시설이 개인이 운영하는 놀이방과 같은 수준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로서 공공복지에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올바른 보육사업을 펼쳐야 함을 놓고 보

있을 때 이런 상황은 매우 우려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비롯한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2-2. 아동지원의 확대와 올바른 집행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원화 됨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만이 아니라 신고된 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중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계층의 아동'은 보육료의 50 %수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대시설별 지원에서 대시설별, 대아동별 지원방식의 전환이 가지는 긍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의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2-1.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70만원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소득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 아동지원대상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계층'을 보육료 50% 지원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140만원의 절반을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120만원의 소득의 절반에 따라 지원대상을 '...60만원미만계층'으로 정했던 지난해에서 인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수치의 조정은 있으나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보육료의 50 %수준을 지원하는 보사부의 방침은 여전히 극소수의 가구만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어 매우 비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즉 자녀를 본 회 보육시설에 위탁하고 맞벌이를 하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가구소득은 94만7천원원이며 120만원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70만원미만계층'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22% 수준으로 나타난 본 회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월급만을 놓고도 보육료의 지원대상 가구가 될 수 없는 현재의 보육료지원기준을 반드시 현실화 시켜 맞벌이 가구에 대해 국가가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본 의도를 살려 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소득에 준하는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2-2. 정부의 아동지원 대상가구 선정에 가구의 주거 형태를 반영해 주십시오.

서울과 지방 그리고 빈민지역과 공단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거형태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회 조사에 의하면 이용자 가구의 소득 분포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주거형태의 경우 대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용자 가구의 대부분(89.8 %)이 전월세이며 그나마 서울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약 816만원, 지방의 경우 757만원으로 나타나 대부분 700 - 1,000만원 수준에 밀집 분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보사부가 정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가구들이 소득의 대부분인 50만원 가량을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비축하고 있음을 볼 때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가구의 주거형태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2-3. 아동 지원에 따른 일선 행정기관의 혼선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의 보육사업 지침이 각 시,군,구로 내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이 자의적,무원칙한 집행을 하고 있어 보육사업수행에 있어 지역별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① 아동지원정책의 미집행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방식의 이원화 자체를 모르고 있어 여전히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시설 외엔 지원하지 않고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아동지원을 국공립시설 등 지원시설에 한해서만 집행이 되었으며 올해에도 여전히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경우 아동지원금 집행을 9월로 미루고 있는데 이는 보사부에서 국고교부금,경기도비가 집행되지 않아서라고 하여 같은 경기도내의 수원,안산 지역의 지원금 집행과 비교하여 볼 때 납득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사부에서 밝힌 지원의지를 상당히 훼손시키고 있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② 소득증명 확인의 비합리성

지난해 아동지원 대상 가구의 선정과 증명기준이 지역별(시,구,동별)로 다

큰바 그 기준과 내용에 있어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제출서류가 복잡하여 생업에 지장을 주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지역 중 공단지역의 경우에는 빈민지역보다 등록된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많기에 월급명세서로 소득을 증명하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러나 빈민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 영세 자영업, 파출부, 일용 노동직, 부업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월 평균소득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본 회 조사에 의하면 월급 명세서 유무에 대해 서울의 응답자의 61.8 %가 , 지방의 71 %가 월급명세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본 회 1992년 3월 조사)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동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가구들에 대한 보육사업전문요원이 가구방문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력의 부족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가구소득조사표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 계약서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구소득조사표는 소득외에도 주거,취업상태,재산물품 등의 항목을 두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선정에 있어서는 소득만을 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항목을 함께 감안한 가운데 지원대상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안사항 3.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소득층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자 가구와 본회 소속 보육시설의 이용자의 직종및 소득과 주거형태와 동일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대상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본 회 소속 보육시설을 포함한 민간보육시설의 지원방안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행 보사부 국가예산 지원방침에 의하면 아동지원과 별도로 시설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만이 이에 해당 됩니다.

이는 "보육시설 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기타 영유아 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24조 제 1,3항)" 을 재정 보조 하도록 한 것의 근거를 미루어 볼때 현재의 부분적인 몇시설에 한해 운영비 보조가 되고 있는 것을 민간보육시설까지 확대 하는 방안의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코자 보육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보조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전환유도 등의 확충계획과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에서 민간보육시설이 제외됨으로 해서 양질의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는 커녕 시설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사부 '92-'96 보육 시설 확충 계획에 의하면 보육대상아동을 보육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90%이상을 민간.가정보육시설로 시설확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나 보육사업이 복지 사업으로 정착되기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보더라도 모든 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안정된 보육환경은 지원대상아동 뿐만이 아니라 보육 시설의 모든 아동에게까지 그 혜택이 갈수 있기에 더욱 중요 한것입니다.

1993년 보육사업지침에 관한 질의를 하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1.>

지난 해 보사부의 자료를 보면 1991년 9월말 가정보육시설이 2,006개소인데 반해 1992년 8월말 현재 1,876개소로 집계,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시설 확충계획에 있어서도 17,948개소로 잡아 지난해에서 감소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가정보육시설의 숫적 감소 현상의 원인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 가정보육시설의 안정과 확대를 위한 보사부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 국가차원에서는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안정과 확대를 꾀하기보다는 중.대규모의 보육시설로 보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보사부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2.>

지난해의 경우 71개 공단지역에 대한 직장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보육사업지침에는 별도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 현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역과 시설수, 아동보육현황에 대하여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해 보사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어떤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3. >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국가, 사회적으로 보육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보육사업정책의 수립도 점차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보육시설로 신고, 인가되지 않은 비보육시설(학원 등)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보사부에서 이를 시정조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 이미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국공립보육시설은 물론이거니와 민간, 가정보육시설에서 입소대상 아동을 모집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보육시설 신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면밀한 사전조사작업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신문속에 세상이 보인다.

자주 바뀌는 조세제도, 진짜 속셈은 ?

1989년 과도한 토지를 분할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무서운 세금을 부과하여 토지투기를 막겠다는 정책목표로 종합토지세제도가 제시되었다가 1990년 하반기에 세율을 낮추는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와같이 자주 바뀌는 조세제도를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의 중요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과세대상에 따른 일관된 파악이 중요하다. 각각의 세제의 변화가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변화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대부분 누진세 형태를 띠고 있는 직접세의 경우 세금의 누진율 구조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흔히 지나치게 쉬운 도표들과 해설 기사를 스크랩하여 정리하여 그 세제가 미칠 영향을 조사해보는 것이 좋다. 셋째, 세금관련 통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가 많이 걷히면 그 전해 기업의 경영실적이 매우 좋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히면 소비가 많거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소득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임금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 누진세 -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화폐가치의 증가에 따라서 점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

지난 3월 한달동안 실시한 본 회 소속 탁아소 이용가구의 소득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올바른 보육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서'의 근거로 쓰입니다. (편집자 주)

본 회 소속 탁아소 이용 가구 소득조사 결과

* 조사의 목적: 지난 '92년에 이어 올 '93에 시행되는 보육정책과 아동지원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올바른 탁아정책의 내용을 제안하는데 근거로 삼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대상가구: 경인지역등 수도권의 294가구와 지방의 104가구가 조사에 참가했다.

〈표1〉 가구소득분포 (%)

구분	30만 미만	40만	50만	60만	70만	80만	90만	100	110	120	120 이상	무직
아버지	2.6	5.9	8.2	12.9	17.5	18.3	8.1	9.3	3.3	1.5	4.1	8.2
어머니	21.3	31.1	20.5	12.8	6.6	1.9	0	2.7	0.3	0	0.8	2.0
부부합계	1.3	4.8	5.7	5.5	4.8	7.5	8.3	11.6	8.5	11.3	30.7	

⑥ 분포를 보면 아빠들의 경우 60 - 80만원대에 밀집해 있었고 엄마들의 경우 20 - 40만원대의 저임금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가구 총소득은 부부 맞벌이로 약 120만원대에 밀집해 있다.

⑥ 평균소득을 보면 부는 약 65만원 또는 약 42만원선 이었고 총소득 94만 7천원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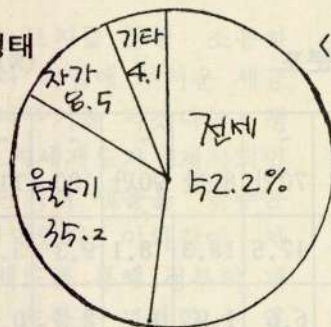
- ④ 표에 의하면 약 22.1%가 아동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소득증명의 어려움으로 제외되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았다.
- ⑤ 위 표에서 보듯 탁아소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가구에게 지원선을 70만원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가구소득평균 94만원에 비추어 너무나 현실성이 없음이 확인되는 수치이다.

〈표2〉 가구지출분포 (만원, %)

	30미만	~40	~50	~60	~70	~80	~90	~100	100이상
순생활비	18.1	32.1	18.4	15.4	8.2	3.3	1.7	1.7	1.1

- ⑥ 대부분 가구들은 의식주의 기본 생활비로 평균 44만5천원 정도의 지출규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전세금 마련등 주거대책을 위한 지출이 포함되면 약 81만원 정도의 규모였다. 그외 소득과의 차액은 빚등에 대한 내역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결국 약 95만원 정도의 소득중 45만원 정도가 생활비였고 반이 넘는 약 50만원 정도가 저축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표3〉 주거형태



〈표4〉

전세액	비율
500만원이하	15.7
~1,000	42.2
~1,500	26.5
~2,000	8.8
2,000만원이상	6.9

- ⑦ 주거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가구의 87.4%가 전월세의 주거형태였으며 대부분 800-1,500 정도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는 '92.3월 현재 조사시 평균 800만원으로 대부분 700-1,000만원 정도의 부담이었음을 볼 때년의 전세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표2〉서 유도되었던 저축 50만원도 인상되는 전월세 값과 주택부담 등으로 거의 전액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표 5) 소득중 보육료 부담율 (표준보육단가 기준, %)

구분	국공립보육시설	민간	가정
영아	13.1	15.7	21.1
유아	8.2	10.8	14.8

- ⑧ 지탁연 소속 탁아소들의 경우 보육료가 국공립정도 이거나 더 낮다고 할 때 보다 부담은 적겠으나, 표에서 보듯 거의 가구소득중 10-15%의 부담을 가지고 보육료를 내고 있었다.
- ⑨ 이상 실태조사에서 보듯,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40만원의 50%인 70만원을 지원선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지원의 의지가 거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설혹 소득이 높다하더라도 전월세의 주거상태에서 소득의 대부분이 주거대책으로 쓰인다면 지원선의 책정시 가구소득/지출과 더불어 "주거상태"등이 반영되어야만 한다.

** 알아봅시다.

여성.생산직 고용감소 두드러져, 월평균 임금 86만9천원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상여금 및 각종 수당포함)은 86만9천원으로 91년 75만5천원에 비해 15.2%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92년 노동통계], 3월18일 발표) 올해는 90만원대 진입이 가능하고 인상률이 지난해와 비슷해질 경우에는 1백만원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 임금 수준을 보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백 21만6천원)이 이미 1백만원대를 상회한 반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 (77만 8천원) 제조업(79만9천원)등은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70만원대의 수준에 머물렀다. 또 사업체 규모별로는 5백인

이상이 1백만원대를 넘어선데 비해 10인 이상~30인미만은 74만원, 30인 이상~1백인미만은 79만4천원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고용감소는 3백인 이상 ~5백인 미만 업체가 3.1%, 5백인 이상이 4.2%로 대기업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광업.제조업등의 두드러진 감소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 등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 산업별 고용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또한 여자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져 노동집약적이고 여성근로자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경공업분야의 고용감소를 반영했다. (동아일보 3/18)

조직과 상황

나, 탁아소, 지역위원회가 곧 연합회다

본 회의 재정은 근 4-5년간 독일의 민간단체에서 보내오는 국외후원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국외후원이 올해를 기점으로 끊어지는 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재정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지난해부터 하기 시작했으며 별도의 재정사업을 벌이기 위해 본 회 재정사업국이 만들어졌다.

본 회의 1993년 1월 정기총회에서는 일상적이면서 지속적인 사업, 가능하면 조직과 연결되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재정사업에 걸맞게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소자본을 갖고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되고, 본 회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 건전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면에서 방앗간 사업으로 정하였던 바 있다.

3월 20일, 우리모두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네 방앗간**이 개업식을 하였다. 본 회의 재정사업을 고민한 지 만 6개월만에 만들어진 우리네 방앗간은 사실 한 두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타 단체에서도 엄두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지탁연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독일에서 앞으로 한국에 대한 후원을 하기 어려우며 올 한해까지

의 후원도 중지된다는 내용의 서신이 3월에 전해졌다. 이는 본 회의 재정자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준비기간을 1년으로 삼고 **우리네 방앗간**을 운영하고 방앗간의 운영이 자리잡는 가운데 국외후원 마감을 준비하겠다는 구도에서 벗어나 훨씬 다급하게 올해로 재정압박이 다가온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올 한해 동안 어떻게 연합회를 꾸려나갈 것인가 고민되는 갑갑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간의 적립금을 방앗간 사업자금으로 쓴 상황에서 매달 사무실운영비로 3-400만원을 대기 어려워 한달 한달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은 물론이거니와 행사진행비 등에 대해서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현재 진행하는 사업도 매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회장단중심으로 소집된 긴급회의에서는 본 회 사무실을 축소, 운영하거나 인건비 축소 등이 거론되었으며, 그간 연합회 차원에서 하지 않았던 수익사업 등이 고민되었다. 그런 과정속에서 사무실을 타 단체와 함께 쓰는 방법, 최대한의 건축재정을 펴는 것 등이 결정되고 수익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회에서 국외 후원을 받아 오면서 소속 탁아소와 교사가 모두 연합회 재

정에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관심을 가지기도 어려웠다.

1993년 지금부터 우리는 스스로 재정을 마련하면서 사업을 벌여나갈 수 없는 상황속에서 탁아소,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합회 차원에서도 수익사업을 벌이고 알뜰한 살림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탁아소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해주는 것과 수익사업에 회원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서울경인지대의에서는 탁아소회비의 인상건 등이 지역대표선에서 제안되었으나 소속 탁아소, 교사들의 상황 또한 연합회만큼 어렵고 힘든 것을 감안하여 회비

인상의 다른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고 보류된 상태이다.

회장단, 사무국 등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지탁연 전 가족에게 바라는 일일 것이다. 연합회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개탁아소 그리고 지역위원회가 바로 연합회라는 인식이다. 그러한 가운데 지탁연 가족으로서 애정과 조직적 결속력을 가진다면 그동안 벌여왔던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번의 어려움을 계기로 지탁연이 좀 더 튼튼하게 자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자라는 아이, 성숙한 교사

모든 놀이에서 주인공이 되려는 아이

대체로 자아의식과 자기 주장이 강한 특징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런 성격이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발전되면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생활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교만하고 욕심 많고 양보심 없는 문제를 지닌 아동으로 자랄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부모가 과잉칭찬과 허용적인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가정생활의 주인공으로 상전으로 취급하는 등 모든 것이 아동위주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동이 가정밖에서도 같은 기대를 하게 된다.

지도방법으로는 아동의 적극적인 성격을 이용하여 남을 돕도록 하여 반의 리더를 만들어주는 등 건강한 인성 발달을 유지한다. 예로는 "그림을 열심히 그렸구나! 다른 친구들의 그림과 나란히 벽에 붙혀두는 게 어떨겠니."

등으로 다른사람과 함께 칭찬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한다. 또한 사람의 능력을 각기 다른 방면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준다. "너는 만들기를 잘하는데 철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영희는 노래를 잘해" 이런 경우에는 아동을 제일 먼저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아동에게 져거나 주인공역할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적절한 위로를 해주고 양보와 자제를 했을 때는 긍정적인 강화를 해준다. "너는 많이 이겼잖아. 다른 아이들도 간혹 이기게 해주자" "참 잘했어 그림만 잘 그리는 줄 알았더니 참을줄도 아는구나"

마지막으로 차례를 기다리며 다른 친구의 활동을 감상하는 동극, 노래 자랑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글마당

젖 병

최 홍국 (인천 세쌍둥이 어린이집)

인육의 때로 물든 병과 젖꼭지를
 삶고 또 삶는다
 끝내 질리게 버티던 젖꼭지도
 흐물거리면
 건조대 위에 가지런한 병과 젖꼭지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혼란의 함성속에
 희망과 평화를 섞어 넣는다
 물속에 용화되어 버린 희망과 평화가
 어느 아가의 입속으로 들어가야 할지
 한 아가의 울부짓음에 평화의 잔해는
 쥐어지고
 투명색 젖병은
 아가의 평화로운 미소로
 번들거린다.

탁아소별곡

3월이면 생각나는 아이

빈 혜영 (부산 꼬마동산)

꽃피고 새우는 춘삼월 3월 1일만 되면 생각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유난히 눈이
 초롱하게 예쁜 '고아랑'이라는 아이입니다.

3년전에 탁아방에 있었던 5세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그림그리기를 무
 척이나 좋아했었습니다. 엄마,아빠가 이혼하고 엄마와 단둘이서만 살았습니다.
 어느날,

“선생님, 오늘부터 나를 고아랑이라 부르지 말고 신아랑이라 불러주세요”

라고 하길래,

“왜 그러니?”

하고 이유를 물었더니,

“새로 아빠가 또 생겼어요.”

라고 깜찍하게 대답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자주 바꿨나봐요.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비해 아랑이는 명랑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3.1절이 다가와 주간계획안 목표를 '3.1절이란 무엇일까요?'를 잡았습니다. 태
 극기 그리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3.1절 동화 이야기도 듣고 만세놀이
 도 하고 아무튼 그 주간은 온통 일본사람과 불쌍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토요일 마지막날 그림그리를 했더랬어요.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것 그리세요.”

하고 시간을 주었더니 거의 태극기를 그리더군요. 아랑이도 예외없이 태극기를
 그렸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랑이 태극기는 특이했어요. 네모 태극기 안에

사람인 듯한 몇개의 조그만 그림이 있고 밖에도 사람인 듯한 몇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군요.

“아랑아, 이 그림 설명 좀 해줄 수 있겠니?”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 이 태극기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이구요. 밖에 있는 사람은 일본사람이에요. 나쁜 일본 사람들이 막 총을 쏘아서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였어요. 정말 속상해요.”

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그만 아랑이에게 감동해 버렸습니다. 어쩌면 태극기의 안과 밖을 구분하여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었는지 아이의 기발한 창의력에 무척 놀랐어요. 부족한 선생님의 교육내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민족애’라는 개념을 조금이라도 익혔다는 것이 나는 너무 대견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에게 느껴졌던 3년전 3.1절에 대한 생각이 지금은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미지수입니다. 우리모두의 교육이 일관된 내용으로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계속 이어져 성숙된 인간으로 키워졌으면 하는 바람도 아랑이 생각과 더불어 듭니다.

그때 아랑이에게 일본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보다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이 싸웠으며 아주 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커서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해 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탁아소엔 아랑이 보다 더 예쁜 아이들이 있으니 그 애들에게 많은 말을 해 줄 수 있겠지.

▣ 필자 소개

빈혜영 : 89년 경성대 졸업.

88년 11월부터 탁아활동시작.

90년 - 92년 탁아활동 중단

92년말부터 다시 재개.

현재 꼬마동산에 있으며 부산지역위 아동교육분과장 맡고 있음.

소식과 소식

☆☆☆☆☆☆☆☆ 연 합 회 소 식 ☆☆☆☆☆☆☆☆☆

〈 어린이날 행사 준비모임 열려 (3/18, 25, 26) 〉

5월 5일에 있을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준비를 위해 본 회를 비롯하여 교육관련 9개단체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19일부터 매주 모임을 가졌다. 작년의 행사를 평가하고 올해의 행사목적과 의의를 논의하고 과정속에서 전체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본 회에서는 지난 91년 이후 올해로 세번째 함께하는 연대행사로 우리아이들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을 위하여 아동교육분과, 자원활동가 연대회의 등과 같이 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우리네 방앗간 개업식하고 정상영업 시작 (3/20 토, 오후4시) 〉

본 회 재정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우리네 방앗간’개업식이 본 회 회장, 사무국, 지역위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0일 (토) 오후 4시에 있었다.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하며 교사를 지냈으며 방앗간에서 만든 떡과 음식을 맛보는 시간이 있었다. 현재 지역위 별로 방앗간에서 하는 상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방앗간에서는 질 좋은 상품과 판로 개척을 위해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다.

〈 서울경인지역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열려 (4/2, 금, 오후6시 연세대) 〉

매월 모이는 서울경인지역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가 4월 2일 (금)오후6시부터 연세대 총학생회 탁아분과방에서 열렸다. 참석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대표자들이 모여 신입회원 모집과 활동현황을 공유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신입회원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와 5월 5일 행사준비가 논의되었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준비와 5월 23일로 예정된 전체자원활동가 체육대회를 준비를 위해 4월 27일(화) 한번 더 모이기로 하였다.

〈 연합회 운영비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벌여 〉

본 회에서는 매달 누적되는 사무실운영비 마련을 위해 금산에서 직송된 온 ‘심전대보탕’을 판매하고 있다. 각 탁아소와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다.

〈 본 회 기관지 『우리네 아이들』 볼거리로 〉

본 회에서 외부용으로 발행되는 기관지인 「우리네 아이들」이 정간된 지만 1년만에 5월 어린이날 특집호로 복간되어 나온다. 「우리네 아이들」은 교사, 자모, 후원인, 단체 등에 배포되어 본 회의 활동을 널리 알려주는 역할로 1년에 4번 발간하였다. 그간 부족한 일손으로 인하여 복간을 하지 못하였다가 올해 법개정과 지탁연활동의 대중적 홍보와 공감을 이루기 위한 대중

선전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복간을 서두르게 되어 상.하반기로 나
뉘어 2회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호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현재의 어
린이날 풍속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
색해보는 특집과 법개정 내용을 중
심적으로 담을 예정이며 4월 26일에
발간예정이다. 「우리네 아이들」은 199
1년 7월 10호까지 나왔다.

사람들

**** 지탁연 가족으로 들어오신 분들**

봉천지역 : 봉천동에기방에 그간
 자원활동가로 2년동안 활동하시다 새
 로운 교사로 조항미씨가, 씩씩이놀이
 방에서는 학교를 휴학하신 후 활동을
 하실 분으로 이경녀씨가 시작하셧습
 니다.안산지역 꿈나무 어린이네집에
 남향숙씨가 활동을 시작하셧습니다.
 인천지역 골목어린이집의 그동안 쉬셨
 던 문유미 (남구 보육위원) 교사가 활
 동을 다시 시작하셧으며 민들레 어
 린이집에는 수원 아이벳에서 일하시던
 김정순씨, 영아탁아소 엄마방에서는
 나눔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이숙희씨가

자리를 옮겨 활동을 하십니다.햇살이
린이집은 북부 동근나라에서 자원활동
하던 고정미씨를 새로이 교사로 맞이
하였습니다.

새로이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빛나는 활동 기대하며 전국의 지탁연
가족 여러분의 격려와 애정부탁드립니다.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인천지역의 햇살어린이집 이해정 선생님이 4월 3일에, 부천지역의 튼튼이 어린이집 임미란 선생님이 4월 4일에 결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역위원회

지방은 3월 16일 지방지대의를 중심으로 4월 8일 지방개특위에서 보고된 사항을 첨가하여 정리하였으며 서울경인지역은 3월 18일 회의에 제출한 보고

서를 기본으로 정리합니다. 실리지 않은 지역은 회의에 불참하였거나 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곳입니다.
(편집자 주)

〈구로〉

아동교육분과에서는 3-4세의 담화활동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어 3월말에 나올 예정이다. 교사분과에서는 신입교사교육을 3월 24일부터 2회에 걸쳐 실시하는데 '지역사항, 유아교육, 자모상담, 법개정, 선배와의 대화' 등의 일정을 잡고 관련분과에서 내용을 준비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자모분과에서는 교사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월례교육으로 「지역주부운동 (강사:부천 YWCA 황주석)」에 대하여 강연을 들었다.

법개정분과에서는 간식비지원 약속 이행과 보육사업지침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구로구에 계속 요구하기로 하고

의원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법개정안
에 대한 검토를 위해 3월말에 월례교
육을 하기로 하였다.

지역연대분과에서는 지역의료팀과의 만남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탁아소간 연대모임 참여대상에 대한 참여촉구를 더욱 열심히 하기로 하였다.

각 집 상황을 보면 새터어린이집, 온누리탁아방은 4월3일 바자회가 있고, 새싹놀이방은 재정사업으로 화장품가게를 3월 28일에 개업하였다. 튼튼이 어린이집은 부모회에서 자모회로 회의 구조를 변경하였으며 공부방과 탁아소 자모들이 2달에 1번 자모회를 같이하기로 하였다.

구로지역위 교사조직분과 주최 '수지칩 소모임' 성황리에 끝나

구로지역 교사조직분과에서는 교사들이 일을 떠나 편안하게 만나고 서로 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타 소모임’에 이어 ‘수지침 소모임’을 가졌다.

스스로의 건강과 아이, 자모들과의 건강을 위하여 이번에 마련된 수지침 소모임에는 구로지역 탁아교사를 비롯하여 타 놀이방교사, 공부방교사, 교회 교인등 18명이 참여하였다. 1월 14일부터 매주1회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어 동양의학 원리에 대한 이해와 수지침, 뜸, 간단한 지압 등을 배우면서 일

상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플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으며 감기 등 평소에 걸리기 쉬운 병에 대해 자가치료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런 내용으로 자모등 주변사람들과 함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듯하다.

* 기간: 1월 14일- 4월1일 (매주 목요일 오후8시-10시) 총 10회

* 수강료: 3만5천

* 강사: 신촌 다살이살판 오한배

(구로지역 교사조직분과장 전미경)

〈안산〉

2월23일 안산시 보육위원회가 열려 진달래동산 시보육위원을 통해 '보육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가정복지과와 보육위원회 주최로 '보육사업지침에 관한 설명회'를 제안하였다.

2월 26일에서 3월20일까지 부모교육을 진행중이다

매주 월요일에 집 대표자회의가 열린다.

3월 2일 월례회가 열려 지역위 이후 전망 (법인화, 탁아소 통합등)을 논의하고 지침서 분석교육과 개정안을 논의, 1년 교육계획안을 점검하였다.

3월5일 공동임원회가 열려 임원교육

안산지역위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실'을 열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 1회로 총 4회에 걸쳐 탁아소 부모들을 대상으로하는 부모교실을 열었다. 이번 부모교실은 일하는 엄마,아빠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탁아소의 교육활동등을 이해하고 합의하는 한편 친목도모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자 마련하였다.

부모교실은 ① 아이들의 생활교육 ② 발달단계에 따른 행동특성 ③ 아동과 놀이 ④ 성평등 교육의 내용으로

〈봉천〉

지난 2월 28일 ~3월1일 양일간 치악산으로 '성남,봉천지역 탁아소 엠티'를 다녀왔다. 엠티의 주요안건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와 정비가

과 개특위활동보고를 하고 올해계획을 논의하였다.

3월 15일 부터 4월3일까지 시설실태조사 및 분석과 민탁연대모임에서는 설명회를 준비한다. 3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타 국공립시설의 지원상황을 파악하고 방문한다. 설명회 내용은 기본적인 운영실태,분포시설 조사와 법개정의 필요성 및 지원실태를 교육하고 민탁모임을 홍보한다 등이다.

각 탁아소 상황을 보면 꿈나무 어린이네는 전세값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을 4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오손도손애기방은 수익사업으로 굴비를 5월중에 판매할 예정이다.

진행되었다.

오랜만에 마련된 강좌형식의 부모교실은 그동안 딱딱한 문제중심의 탁아소 모임에서 벗어나 공동의 관심사일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내용으로 한 것에서부터 부모들에게 새롭게 다가갔고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앞으로 '부부관계' '건강과 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부모교실을 가진다면 좋을 것 같다.

(안산지역 조직분과장 심선경)

있어 기존의 성남,봉천이 함께 모여왔던 구조를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양지역의 집대표1인씩이 모이는 비정기 모임을 가지기로 잠정합의를 하였다.

3월 15일 월례회의가 열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행사로써는 봉천지역위가 매년 인형극관람을 해오던 것에서 올해는 3월 25일 계몽문화센터를 관람하였다.

이후 일정으로는 3월 31일 보육지침 분석작업과 4월 공동자모회를 예정하고 있다.

〈부천〉

3월 2일 신진교사교육에 3인의 새로운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내용은 지탁연 회칙,조직구조 및 역사와 부천지역위 사업개괄,개특위활동 총괄,아동교육의 목표를 잡았다.

3월 3일,4일에 대표자회의와 월례회의가 있어 월례회의의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검토를 하였다.

3월 10일 민탁연대 준비모임은 지구

〈인천〉

3월 5일 임원회의와 3월 12일 대표회의가 있었다.

각 분과 사업을 보면 아동교육분과에서는 공동교육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교사조직분과에서는 교사개인기록카드를 배포하여 수거할 예정이며 신진교사들이 각 분과로 편제되었다. 자활조직화를 위해 인하대와 인천대 작업을 하고 있다.

자모조직분과에서는 3월 3일 공동자모임원회의에 8곳의 임원자모들이 참여하여 회칙을 개정하여 공동자모회비를 설정하였고 신 임원진 선출,3.8 여성대회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개특위에서는 개정안과 보사부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교사들과는 3

고 있다.

각 탁아소 상황을 살펴보면 봉천동 애기방은 국민학교 입학한 졸업아동 2명이 방과후 탁아소로 다시 오게되어 이들에 대한 고려를 고민중에 있으며 갑작스런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재정에 곤란을 겪고 있다.

별 모임 점검과 중구 원장모임 안전을 검토하였다.

3월 12일 민탁원장모임이 15곳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보사부보육사업지침을 분석하는 한편 임원선출이 있었다. 임원은 회장,총무,3개지구장으로 구성된다.

연대활동으로 지역내 탁아소,공부방 실무자 수련회를 4월중에 할 예정이다. 5월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월 27일 월례회의에서,자모들과는 4월중으로 자모교육안을 별도로 작성할 예정이다. 양성교육기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시내 대학교,시청을 방문하여 인천시내 양성교육기관을 유치할 것을 촉구하며 인천지역내 탁아관련 학계,관계자들 모임을 추진하고자 한다. 연대분과에서는 민보련모임에 대한 보고와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여성연대모임이 매월1회 있는데 여노회와 공부방연합회 등이 모여 각 단체 활동을 공유하고 여성활동가,여성대중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인천시 여성복지예산검토,각 단체간 상호지원 연대활동,여성문제의 정치화,인천지역여성단위의 전망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직화하는 것으로 잡았다.

〈수원〉

3월 12일 교사교육이 있어 영보법개정안과 보육사업지침에 대한 기초논의를 하였으며 이는 19일 중앙개특위장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집중논의를 하였다.

3월 15일 집대표자회의가 열려 오산햇살아가마음의 정상운영을 논의하였

다.

각 탁아소 상황을 살펴보면 용기중기의 경우 3월11일 입원자모교육이 있었으며 15일 자모회에서는 환경교육과 무공해 비누만들기가 있었다. 지난 12월 문을 닫았던 아이벳 놀이방은 6개월간의 휴원을 최종결정하였다.

인천 세쌍둥이어린이집 시설이전기금 마련을 위한 「노래를 찾는 사람들」 공연과 세쌍둥이 추모제 열려

지난 3월19-21일 인하대강당과 인천시민회관에서 세쌍둥이 어린이집 시설이전기금 마련을 위한 「노찾사」공연이 있었다.

이번 공연은 무료입대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조차 마련할길 없던 세쌍둥이 어린이집의 이야기들을 듣고서 인천공연을 기획하던 「노찾사」기획실이 세쌍둥이 어린이집시설 이전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공연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찾사」공연 도중 인천지역탁아위원회의 협조로 인천의 나눔어린이와 햇살어린이의 재롱순서도 있었다. 약 3천 5백여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공연수익금은 세쌍둥이 어린이집 시설이전기금으로 쓰인다.

3월 28일 인천의 부평4동성당 교육

관 대강당에서 세쌍둥이 2주기 추모제 및 지역어린이를 위한 문화공연이 있었다. 전교조 인천지부 총무이신 노미화선생님의 사회로 본회 회장의 추모사와, 경과보고 및 부스리기선교회와 인천의 전문노래패 「노래선언」의 추모노래로 1부 추모제는 진행되었으며 2부는 문화적으로 소외되어있는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감동을 통하여 작은소망을 심어주고자하는 목적으로 신명나는 풍물과 블루마이트를 이용한 그림자 놀이 「파란나라」 인형극 「미운 아기 오리」로 진행 되었다. 지역의 공부방과 탁아소의 어린이들 약 3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추모제와 문화공연을 통하여 우리 어른들이 다시 되돌아보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도록 노력을 다집하는 시간이 되었다.

(인천 세쌍둥이 어린이집 최홍국)

〈대전〉

3월 9일 대전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에 참석하여 보육지침에 대한 개괄설명을 들었다. 3월 12일 -15일 기간 동안 시의원과 시정질의에 대해 논의 하였으나 근거자료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시정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3월 22일 월례회에서 보육사업지침을 분석, 교육하였다. 놀이방연합회에 샘플 놀이방이 함께 모이고 있으며,

아동지원금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신문에서 취재해 간 이후로 구청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또한 아동지원금 횡령으로 문제가 된 소라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우선입소와 아동지원에 있어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 조사 후 대응할 예정이다.

3월 17일 자활모집을 위해 각 학교에 편지보내기 작업을 하였다.

〈대구〉

3월 15일, 16일 보육사업지침에 대한 교육과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

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는 전교조와 함께 연대행사 할 예정이다.

〈부산〉

각 집상황을 보면 꽃들나라는 구포지역에서 우암동으로 이전하여 영아탁아소로 4월 초에 개원할 예정이며, 같은 우암동 지역인 꼬마동산은 꽃들나라와 연계하여 공부방을 낼 계획이다. 우리아가동산, 온누리놀이방은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아기자람터는 여성노동자회와 지역작업을 계획중이다.

부산지역위는 주1회로 아동교육분과 회의에 전원이 참여하여 이론과 실기

를 세미나하고 있으며 부산 걱정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세한 탁아시설 전세금 지원을 위한 사랑나누기 대 바자회'를 5월말로 놓고 준비하고 있다.

4월말에 전체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탁아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는 이전에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왔던 것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렵다고 여겨지고, 걱정모임소속 놀이방에서 연합행사를 제의해와서 두가지를 놓고 고려중에 있으며 자체 준비중이다.

〈광주〉

3월 14일 월례회에서 보육사업지침서를 검토하였으며 전남대 탁아투신팀과 간담회를 가져 탁아운동론에 대한 대략적인 기초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광주지역내 놀이방협 100개 중 2-30개가 회원으로 있는 놀이방협회가 있는데 광주지역위와 연대

하면서 활동을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4월 9일 보육사업지침 설명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 연대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도담도담아기둥지는 지난해에도 아동지원을 받지 못하여 신문등을 통해 실상을 알리는 한편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아기동지는 구립형 어린이집인 '사랑의 놀이방'으로 지정된 지 2년째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지원금을 삭감하여 계속 알아보고 있으며, '사랑의 놀이방'지정 탁아소들과 함께 연대모임을 가지려고 고민중에

<전주>

지난 동계수련회에 참석하였던 부안의 마포어린이집을 회원탁아소로 받아 들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리 정다운 어린이집은 공단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금마련을 하고 있다.

3월 8일 월례회의에서는 신입교사 환영식과 전 지역대표이셨던 오춘자(금암어린이집)선생님께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현 지역대표와 함께 연대활동을 나눠 하기로 하였다.전북지역 여성운동연합 건설준비위원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3월 27일 정식으로 창립대회를 하였다.

전북지역에 새로운 양성교육기관으로 우석대학이 지정되었으나 현재 양성교육만을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보

<군산>

해뜨는 동산은 임대기간동안은 놀이방으로 있으면서 자격과 시설조건을 갖추기 위한 기금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다.아동지원을 현재 9명 신청하였으며 월급명세서 대신 전원세계약서를 증빙서류로 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는 전교조,공부방연합회,학부모회 등과 함께 연대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우리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 고민중이다.

조금이 집행되지 않아 보수교육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수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

시 보육위원회를 3월에 구성하였는데 이혜숙(일터 어린이집),오춘자(금암어린이집) 선생님이 구성원에 참여하였다. 시 보육위원회에서 신축시설 지원에 관한 검토속에서 현재 일터어린이집이 있는 팔복동에는 더이상 어렵다고 하여 일터어린이집은 이전을 고민중에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는 각 단체와 연대하여 해왔던 작년과는 다르게 자체에서만 하기로 하였으며 가을에 공청회를 예상하고 있다.전북대에서 자활모임을 하면서 새로운 탁아소 건설준비를 하고 있어 연계하고 있다.

있으며 간식비가 지난해 12월에서 200원으로 인상,결정되었으나 아직 집행되고 있지는 않다.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한사랑 어린이집의 경우 용도변경건이 걸려 있으나 당분간은 별 문제없이 지나갈 것 같다.

모임과 모임

< 지역대표자회의 >

3월 16일 지방지역대표자회의 (마산 불참)

3.8여성대회 참석건과 4월 공청회 개최건에 대한 중앙보고와 개정안 검토작업,그리고 개정활동,민탁연대 활동에 관한 각 지역활동보고를 들었다.

지역활동보고 중 보육지침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지역위 단독의 행사가 아니라 민탁연대모임이나 보육위원회 추동이 필요하고 시.군.구에서 실시되

는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에도 민간탁아소 운영에 대한 사전질의내용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되었다.

그리고 개특위와 지대의에서 검토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가지고 각 지역위에서 교육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3월 18일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중부,성남 불참)

여성 평화의 집과 본회에 대한 인간의 대지 후원증지건에 관한 간단한 중앙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각 지역위활동보고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각 지역위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 재개발문제,입소대상조정의 문제,민탁연대에서 지역위의 위상과 성격,위탁체 선정 및 지역내 탁아소의 통합문제' 등에 관해서 다음 지대의 지역논의순서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4월 1일 서울경인지대의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좌 실시와 공청회개최,우리네 아이들 복간에 관한 중앙보고와 어린이날 행사준비와 민간탁아연대작업에 관한 점검을 하였다.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월5일에 쉬지 않는 탁아소의 경우 의미를 충분히 공유하여 부모가 함께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특별히 지

역자체 행사가 잡혀있지 않는 지역은 모두 중앙 연대행사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민탁연대의 경우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4월초에 발송할 올바른 보육사업을 위한 제안서를 각 민간탁아소에도 발송할 수 있도록 민간탁아소의 주소를 사무국으로 전달할 것이 결의되었다.

< 영유아보육법개정특별위원회 >

지방개특위

지방개특위는 월 1회 모임을 하는 관계로 서울경인지역에서 마련한 내용을 보완하여 각 지역별 작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3월 12일 정기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초안과 보육사업지침분석자료를 놓고 교육을 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현안이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군산지역에서 제기한 민간보육시설은 주거전용지역에 설치가 곤란하며

서울경인개특위

서울경인 개특위는 매주1회씩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활동을 점검하고 주로 중앙작업을 깊이 논의하였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마련과 1993년 보육사업지침을 분석하는 가운데 보사부에 낼 제안과 질의 내용을 마련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벌였으며 3월에 실시한 가구소득조사를 담당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내어 개특위에서 마련한 개정안. 제안서 초안을 정책소위로 넘겨 보강하였다. 개특위는 중앙작업의 초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받아 각 지역별 작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위하여 4

용도를 변경하여야만이 신고되는 경우, 광주지역의 보육사업지침에 대한 설명회 개최에 대한 점검, 아동지원과 시설지원에 대한 지역별 현황에 대한 논의속에서 중앙과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뽑고 한달간에 진행상황을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음모임은 4월 8일(목) 12시 30분에 대전에서 모인다.

월부터는 격주로 모임을하기로 하였다. 4월 7일 모임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서울시의 대응이 미약함이 제기되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 집행위로 제안되었다. 또한 인천, 구로 등의 지역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용도변경건에 대하여서는 처음에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매우 복잡하고 건축부 등 담당행정부서와의 관계등이 고려되어 좀 더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대응하기로 하였다. 다음모임은 4월 21일(수) 오후3시이다.

< 아동교육분과 >

서울경인지역 아동교육분과는 3/2,3/16,3/20에 걸쳐 세번의 모임이 있었다. 작년에 이어 지역교육활동교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가장 교육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자료가 나와서 지역에서 아동교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중심논의는 2월에 「소풍,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각 지역의 자료를 모아 토론.정리하여 지침서를 냈으며, 3월에는 「신

입아동을 대하는 자세와 역할」에 대해 교사 지침서 정리를 하였다.

4월부터는 5월5일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의의와 목표를 합의하고 어린이날 행사 준비위원회로 전화하여 주1회의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북부지역에서 지역사정으로 분과활동을 보류한 상태이고 부천지역이 분과장의 개인사정으로 잠시 활동이 중단되고 있다.

지방아동교육분과는 첫모임이 2월 23일에 있었으며 주된 내용은 각 지역의 아동교육분과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였다.

3/24두번째 모임을 하였다. 광주,전주의 1년 아동교육활동계획을 점검하고 소풍에 관한 내용 정리, 어린이날 행사를 지방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논의 중 서울경

인지역이 모두 정리된 이후 지방에서 안전으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서울경인과 동시에 같은 사안을 갖고 고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하였다. 지방아동교육분과회의는 대전,대구,군산,광주,전주,부산 등 6곳의 지역아동교육분과장이 월1회 함께 모이고 있다.

< 조직분과 >

3월3일 '대선평가와 탁아운동의 방향모색'의 주제로 열린 교사정치토론회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논의했다. 평가서는 조직분과와 지역대표자회의를 통해 각 지역에 전달되었다. 3월부터 분과원의 변동이 있었는데 북부지역이 지역사정상 분과활동을 보류하였고, 성남지역에서 분과는 없지만 중앙으로의 결함을 지역적으로 합의해 이근선씨가 앞으로 함께 활동하게 되었

다. 앞으로 조직분과에서는 매 시기의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문건과 자료를 정리해서 각 탁아소에 전달함으로 교사들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고 심화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모들의 일상적 정치의식화의 내용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교사재교육 커리큘럼 준비작업은 우선 신진교사용 커리큘럼의 작성과 자료준비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들의 목소리

**걸음마 연습을 하며
새로운 출발!**

변미양 (사무국 총무간사)

챗바퀴를 돌리고 있는 다람쥐가 한 마리 있었다. 열심히 챗바퀴 돌리는 것을 옆에서 보던 곰이 다람쥐에게 가서 물었다.

“다람쥐야, 너는 왜 챗바퀴를 돌리고 있니?”

“응,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거야.”

그 대답을 들은 곰은 다람쥐에게 그 안에선 아무리 뛰어도 끝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이 말을 들은 다람쥐는 기운을 잃고 더 이상 뛰지 않았고, 돌아가지 않는 챗바퀴를 보고 심심해진 주인은 화가나서 다람쥐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 그 며칠 후 다시 챗바퀴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 다람쥐를 보고 곰이 다시 물었다.

“다람쥐야, 너는 왜 또 챗바퀴를 돌리고 있니?”

“내가 챗바퀴를 돌리지 않으니 주인이 밥을 주지 않아, 난 배가 고파서 뛰고 있어.”

그 말을 들은 곰은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다람쥐는 챗바퀴 돌리기를 멈추었다. 다시 며칠 후 다람쥐는 또 챗바퀴를 돌리기 시작했다.

“다람쥐야, 너는 왜 챗바퀴를 돌리고 있니?”

“가만히 있으니 너무너무 심심해.

난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챗바퀴를 돌리고 있어.”

어느 책엔가 써어있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새삼스러울지 몰라도 지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는 다람쥐의 말은 바로 나를 대변해주는 것 같다. 아니, 이제야 겨우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걸음마를 연습하고 있어’가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른다. ‘왜’라는 이유를 달기전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만치나 숨가쁘게 가슴 벅찬 것이고, 그 뿌듯함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라는 방법론으로 생생하게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사무치게 깨닫고 있다.

무슨 더 많은 말이 필요할까마는 우리가 함께 허물고자 하는 벽과 건너야 할 강을 앞에 두고 있는 탁아의 현실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실무자들과 어려운 중에도 한 걸음 앞서고자 하는 연합회 구성원들 속에 부족하고 서투른 몸짓이나마 함께 하고 싶다는 우리의 의지가 꾸준히 나를 뒷받침하고 북돋아주리라 믿는다. 한동안 본의아니게 현장에서 멀어져 있었고 역량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리라는 주저함이 내 몸을 더 마비시키고 있지만 보다가 가까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사안을 놓고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하고 싶다. 아직은 일에 대한 한편의 염려와 한편의 조급함을 적당한 수위를 맞추도록 익숙해져야 하는게 급선무겠고, 많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감수해 주는 사무국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 편집자주: 변미양씨는 3월부터 일주일에 두 번(월,목) 총무간사로 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바랍니다.

「한 아이」를 읽고서

오윤정(사무국 아동교육간사)

단 한가지 이유, 내가 문화홍보간사 옆자리에서 일한다는 것 때문에 한편의 책과 ‘함께 가는 길’에 글을 써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렇게 받은 책 「한 아이」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따분한 학회에서 추상적인 아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아동을 찾자는 구호아래 읽었던 책이다. 그 당시의 충격은 그 어린아이에게 주어졌던 가정, 사회환경의 척박함, 어두움 그리고 6세의 어린이도 성폭행 대상자가 될수 있다는 비참한 현실이 존재하는 사실때문이었다.

이번에는 그때와는 다른 면에서 다시 읽게되었고, 또 다른 감동을 얻었다. 지난 3년동안의 교사생활이 이 책의 또 하나의 주인공 토리선생님을 아다니게 하였고, 지난 나의 생활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 아이」의 주인공 쉼라는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학대받으며 자란 여섯살난 여자아이이다. ‘아동기의 만성 부적응증’이란 딱지를 단 쉼라는 세살짜리 남자아이를 유괴하여 나무에 묶어놓고 불을 지르는 등의 잔인한 폭행을 가함으로 결국 특수학급에 배치되었고 특수학급 토리선생님과 만남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토리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 이해로 쉼라의 마음의 문은 조금씩

열리고, 그속에서 쉼라의 천재성은 발견되고 결국은 쉼라가 온전히 자신을 되찾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로 변화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나는 이 글속에서 토리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일관되게 발견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해하려 했던 모습은 큰 감동이었다.

나의 3년 교사생활은 실수연발이었던 것 같다. 항상 말썽피우는 녀석이 저지른 일이라 생각하면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시비를 따지고 혼을 내고는 결국 그 녀석이 조그만 목소리로 “내가 하지 않았어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의 실수에 대해 느끼는 낭패감과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범벅이 되어 나는 어디론가 숨고 싶었다.

우리는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좋은 교사가 되는 것 같다. 이러한 시행착오의 시간을 좀 더 줄이고, 더 빠르게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은 우리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이다. 내가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교사가 아이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 자신을 스스로 평가, 반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샘터유아교육신서 10. 값 3천원)

치악산을 찾아서

강영신 (성남 새날아가마을)

원주시와 횡성군에 위치한 치악산은

1,288Km의 웅장함을 자랑하듯이 도도하게 솟아있었다. 계절에 따라 산이 달라 보이지만 치악산은 어느 계절에 가든 든든하였고 늘 긴장이 되는 산이다. 매표소에서 세럼폭포까지는 평지여서 쉽게 갈 수가 있고, 중간에 구룡사 구경을 빼놓을 수는 없었다. 세럼폭포에서 길은 갈려 왼쪽은 사다리 병창, 오른쪽은 계곡을 이용해 산행을 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사다리 병창은 입산이 전면 통제되었다. 말그대로 치떨리고 악에 바치는 산, 아이젠 없이는 거의 오를 수가 없을 정도였고 겨우내 못보던 눈을 그곳에서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았다.

다 온 듯 눈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2월 28일 ~ 3월 1일 2박 3일간 성남봉천지역 애타중 치악산 정상에서 성남, 봉천지역 선생님들과 함께

정상인것 처럼 보여 몇 번을 속아 올라간 정상은 너무 추웠다.

새개의 돌담에 대한 전설.. 그 옛날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서 돌담을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

흐르는 물은 너무 맑아 빨려들 것 같은 느낌이어서 돌아오는 길이 못내 아쉬웠다. 교통편은 원주행 고속버스나 기차를 이용해 쉽게 갈 수 있고, 구룡사 입구까지는 3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깨끗하고 넉넉한 민박도 도움이 된다. (15인 기준 4만원정도)

때로는 종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코스로 구룡사 - 세럼폭포 - 정상 - 구룡사까지 총 12Km이며 소요

간은 6시간 정도면 된다.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는 당일코스가 충분하지만 겨울에는 빠듯한 산행코스가 될 수도 있다. 다음에 사다리 병창이 입산통제가 풀리면 다시 한번 가보리라는 마음을 먹고 필자는 치악산을 권해본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박선희(중부 또래 놀이방)

“나 본격적으로 연극하기로 했어. 요즘 시대에는 재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세상이라하고. 이판에서 승부를 걸려고 결심했는데, 그러자면 언젠가는 해야 할 과정인거 같아서 일찌감치 해버렸어.”

연극을 하는 친구의 쌍꺼풀 수술한 모습에 놀라서 어리둥절해 있는 내 앞에서 씩- 웃으며 녀석이 한 말이었다. “어때?”

라고 묻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작년 여름 캠프때의 일을 떠올렸다. 작년 가평에 있는 작은 교회를 빌어 또래 친구들과 여름 캠프를 떠났었다. 캠프 첫날을 신나게 놀고 먹으면서 보내고 나니 어두어졌다. 잠자리를 깔면서 친구들 옷을 갈아입히고 있는데, 뻐걱하는 문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그 교회 목사님딸이 교회문을 뚫고 들어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소란스레 노는 소리를 따라 교회까지 나온 모양이었다. 지저분한 런닝에 팬티만 입은 4살짜리 여자애였는

데, 검게 탄 얼굴이 건강해 보이는 시골아이였다. 뜻밖의 출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바라보고 서 있는데, 고맙게도 또래 친구들이 마구 달려가 그 애를 맞이하였다. 그리고는 손을 잡고 신나게 뛰고 뒹굴고 웃고, 일껏 깔아놓은 이불속으로 기어들어가 숨기도 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노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천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렇게 내, 남 없이, 외양에 상관없이 어울려 노는 걸 보니 어른보다 천사같은 구석이 많은 건 사실인가봐요.”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교사하나가 한 말이었다.....

“너, 나중에 아마 후회할 거다.”

라는 대답아닌 대답을 친구에게 던지면서 나도 씩 웃어주었다. TV를 봐도, 거리를 다녀봐도 비슷하게 예쁜 여자들의 모습에서 획일화된 미를 발견하고는 씁쓸해진다. 이러한 요즈음에 자연스럽고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또래 친구들과 매일 함께 지낼 수 있다는게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맙게 느껴진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끼며 사랑하는 ‘내’가 되어야 함을 또래 친구들에게 매일 배운다.

원고 모집 I

탁아소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있었던 재미있고 기발한 상황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펜을 들어 탁아소별곡으로 보내주십시오. 활동하면서 느끼는 솔직담백한 느낌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통해 나눠봅시다. 수필, 시, 콩트 등 장르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투고해 주십시오. 글마당은 넓습니다. 편집부앞으로 매월 5일.

새 책 소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2,3』 박세길 지음, 돌베개출판 (각권 4천5백원)
지은이는 서문에서 이 책을 쓰면서 '민중을 중심에 둔 역사', '민중의 요구와 역할에 대한 외세 (특히 미국)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남북한의 민중을 동시에 하나의 민족사의 주체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밝혔다. 제 1권은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 제2권은 휴전에서 10.26까지, 제3권은 1980년에서 90년대초까지의 현대사를 다루고 있다.

『애창 민중가요 백과』 아침노래기획 위음, 아침 출판 (5천원)

유신시절, 암울한 시대상황에 대한 저항을 노래로 표현했던 소규모 노래 집단의 운동에서 출발, 80년 광주항쟁을 거쳐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한 노동가요의 양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민중가요를 시대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여 많은 성과를 축적해왔다. 이 책은 그러한 민중가요를 연대별, 시기별로 노래의 갈래를 나누어 구성했고, 각 연대마다 이에 대한 분석의 글과 도표를 실었고 악보의 정확성을 중점으로 편집했다.

원고 모집 II

각 지역위원회, 탁아소에서 있었던 행사와 특이한 활동에 대하여 또는 지역 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은 일들에 대하여 보내주십시오.
지역위원회 소식으로 자세하게 실어드립니다. 원고 작성이 어려운 경우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취재도 가능!

『전 인민군 종군기자 수기 이인모』 이인모 기록, 신 준영 정리, 월간 말 출판 (4천 7백원)

얼마전에 북한으로 귀향된 이인모씨의 수기이다. 그는 1950년 인민군 종군기자로 남한으로 내려와 지리산에 남아 유격대원과 함께 투쟁하다 1952년에 체포되었다. 59년 출옥했다가 61년 지하당 조직자금 제공혐의를 받고 징역 15년이 확정되어 총 34년동안의 긴 세월동안 수감되어 있다. 풀려난 이인모씨의 생애가 진솔하고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의 전 생애를 걸친 통일에 대한 열망과 조국에 대한 사랑은 순박한 그의 몇편의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이인모씨의 수기는 감옥생활에서 겪은 처참한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한 폭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 개인의 삶에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비극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그 역사를 극복해가는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벼룩시장

판	보육사업지침 .보사부 탁아교사를 위한 교육자료집 제1부 아동교육.지탁연, 회원 3,000원 외부 3,500원 우리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한울. 3,500 일하며 키우며 .백산서당 회원4,000 외부5,000 탁아자원활동이란. 지탁연 1,000 * 수.과학활동자료집,게임놀이자료집,문제행동사례집,보육프로그램은 품질.	
	본회 사무실 운영기금 마련 금산產 십전대보탕 판매함 30,000원	우리네 방앗간 - 참기름 8,000원.돌김 1,000원 생일,결혼식 떡 맞춤. 품질,맛 매우 좋음 연락처는 032)513-9683
알 림	(가칭)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일시: 1993년 4월 23일(금) 오후 2시-5시30분 장소: 전진상교육관 (명동제일백화점 옆, 전화 776-1712) 내용: 본회의 개정안 발표,민주.민자당.보육시설연합회.인천민보련.교수의 토론. 다과회가 있을 예정 지탁연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광주 보육사업지침 설명회 > 일시: 4월 10일(토), 오후 2시 장소: 광주여성의 전화 주최: 광주지역위원회, 놀이방 연합회	< 구로지역 체육대회 > 일시: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장소: 구로 문성국민학교 구로지역위 소속 탁아소의 엄마,아빠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놀이를 합니다.!!
	탁아소개보수를 싸고 마음에 들게 - 미꾸리를 찾으세요 !! 탁아소의 내부공간 개보수에 숨겨 있는 일꾼을 소개함.상담도 가능. 본 회사무실,인천 엄마방,새싹방 등의 개보수를 저렴한 가격에 성의있게 한 경험이 있음. 연락처는 우리네 방앗간으로..	4월 24(토) 북부 등근나라 이전개원잔치 25(일) 대전 샘골놀이방 네돌 잔치 27일(화) 서울경인지역자원활동가 대 표자회의 (6시,고려대) 5월 5일 (수) 전주 일터어린이집 일일찾집
	본 회 기관지 '우리네 아이들' 복간 !! 지령 11호로 4월 25일 발간 예정, 기다려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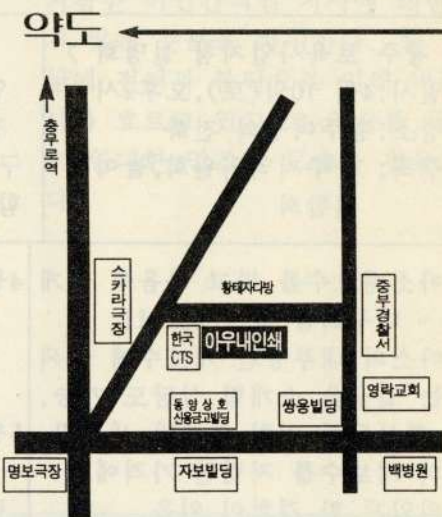
양성.보수교육 일정소개

(3월 15일 현재 확인 사항임)

교육기관	연락처	교육일정	준비할 사항
기독교방송부설교육훈련원	572-8243	4월 마지막주에 보수교육있음.	이수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진4매, 수강료 32,500원
Y.M.C.A	779-4900	4월말내지 그 이후에 (보수)	이수증명서, 최종졸.증서, 수료증 원본, 반명함판사진2매, 32,500원
충신보육교사양성원	582-0952	7/12 -16 확정 (보수)	이수증명서, 주민등록초본1통, 최종학교졸증서, 반명함판사진4명, 3만원정도
양성교육은 6/30개학 예정으로 접수중			
국제어린이교육연수원	806-0093	5,6월 이후에(보수). 올 9월경에 (양성)	
서일전문대학	433-0015	6,7월경에 예정(보수). 양성교육은 3/22개강	
평화방송부설	277-9921	5월정도예정(보수) 양성교육은 4/20	
이외에 YWCA, 덕성여대, 중앙대, 중앙승가대학은 올해내에 보수교육에 대한 계획없음.			

'함께 가는 길'을 인쇄하는 곳
아우내에서는
탁아소내 회지, 소식지
발간 상담,문의도 환영
합니다.

편집에서 기획, 인쇄 및
제본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아우내인쇄

서울중구 소동 155-3 (안흥빌딩) TEL. 277-8990(대) FAX. 263-6289

밝고 힘찬 우리의 멋!

전교조 산하 재정사업 전담단체인 참교육사에서는 우리의 꿈과 사랑이 담긴

참교육물품을 제작.판매합니다.

해직교사 생계해결과 전교조 후원금 지원, 생활문화차원으로 우리 정서에 맞는

물품을 제작.판매합니다.

참교육사는 본 회 소속 탁아소 아이들용 물품을 싼 값으로 공급합니다.

★아이들 여름옷 상하의 한벌 : 6,500원 -> 2,000원으로 공급

★ 여름옷 상의 : 3,500원 -> 1,500원

★ 아이들 모자 : 3,000원 -> 1,000원

★ 아이들 허리가방 : 1,500원 -> 500원

★ 아이들 양말 : 2,000원 -> 300원

★ 숫자, 문자 퍼즐상자 : 3,500원 -> 1,000원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품 및 탁아소 바자회 용으로 알맞습니다.

참교육사는 이외에도 문구류, 생활소품, 기념품, 의류 및 잡화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5동 52-74
대림빌딩 2층
영업부: 236-5905

편집부에서

**** 이번호 '만나보았습니다'는 편집부 사정으로 실지못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우리손으로 만드는 '함께 가는 길'**

본 회의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가는 길' 발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편집부에서는 자체 재정을 마련하는 길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길이라 여기고 지탁연 가족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소식지 발간에는 매월 약2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편집부에서는 우선 참교육사와 아우내 인쇄소로부터 후원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교사여러분의 '함께 가는 길'을 아끼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손으로 발간하는 '함께 가는 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좌는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 날로 어려워지는 연합회 재정상황이 드디어(?) '함께 길'에까지 여파를 미치게 되었으니.. 내용면에서나 재정면에서나 '함께 길'은 교사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린다. (희연)

* 자꾸 누락되는 기사가 생겨 여러분들께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든다. 매번 발간될때마다 하는 다짐이지만 다음호엔 좀 더 나은 내용, 좀 더 나은 편집으로 여러분을 만날것을 약속드린다. (애용)

* 나름대로의 야심(?)을 갖고 「아래하 한글 2.0」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보기 좋은 편집을 꿈꾸었으나 .. '우리네 아이들'을 거쳐 5월호 '함께 길'은 분명히 더욱 나아지리라. (정은)

펴낸 곳: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
02) 838-3296~7

펴낸 이 : 최현숙
묶은 이 : 정희연, 이애용, 서정은
펴낸 날 : 1993년 4월 12일